

## 진안무주-고창부안, 국가지질공원 도전

**도-시군, 29일까지 주민공청회  
7월 말 정부인증 신청, 후보지 24곳**

진안·무주권과 고창·부안권이 이달 말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국가지질공원은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인정돼야 인증받을 수 있다. 현재 독도와 울릉도 등 전국 7곳이 인증된 상태다.

전북도와 해당 시·군청은 그 인증서 신청에 앞서 11일부터 29일까지 권역별로 주민 공청회를 갖는다. 진안쪽 공청회는 11일 오전 10시 산약초전시관, 무주쪽은 12일 오후 2시 설천면사무소에서 열린다.

고창쪽 공청회는 29일 오후 3시 고창군청, 부안쪽은 26일 오후 2시 변산면사무소에서 열린다. 지자체들은 이후 신청서를 보완해 빠르면 이달 말 제출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권역별로 12곳씩 모두 24곳이다. 이 가운데 진안·무주권은 진안 마이산과 수선루, 무주 구천동과 구상화강편마암 등 12곳이다.

고창·부안권은 고창 운곡습지와 선운산, 부안 채석강과 모항 등 12곳이다.

지자체들은 올 연말 국가지질공원을 인증받겠다는 게 목표다. 계획대로 인증받으면 내년부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도 도전키로 했다. 현재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 1곳이 인증받았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